



지구촌 선교 및 평화

특별헌금
평화와 화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 헌금

데살로니가후서 3:16-18

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평화의 정원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교회를 닫고 사역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치몬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팬데믹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내전을 피해 이 나라에 왔거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이 만연한 곳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성도와 친구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있었기에, 평화의 정원이 이 교회에 중요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앉아 쉬고, 하나님 선물인 평화를 떠올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정의나 총제적 의미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놀라운 점은 두려움 공포 불안이 우리 집단의 삶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팬데믹 동안,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세계적인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적인 팬데믹의 스트레스 와중에 평화의 정원을 조성한다는 생각은 말이 안되는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바울 그리고 평화를 향한 그의 갈망

여러분이 받으신 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 헌금 자료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미의 바울의 기도가 말도 안되는 제안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나온 담대한 기도임을 이 서신은 언급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축복으로 끝맺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많은 편지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경고 후에 나왔습니다. 바울은 위기 중에 그들이 받은 가르침을 거스르기로 결정하고, 공동체에 불안과 거짓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나태함은 행동의 결여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고 더이상 배우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v.6); 그리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10 b). 그는 이러한 이들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v. 11b)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지막 말은 화해의 길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v. 15)

이런 맥락에서 16 절을 보면, 우리는 평화의 말로 이 편지를 끝내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벌리 로버츠 개본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주석에서 이 평화의 기도가 "놀랍도록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이는 회중이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직면하고 있는 시련과 환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본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신실한 이들이 현재 견뎌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미래에 반란과 무법이 그들을 어떻게 위협하든지, 그들 내의 무질서로 인해 어떤 위험이 존재하든지, 그들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부터 평화의 선물을 받기를 확신을 가지고 기대한다.¹

평화 기둥에서 얻는 지혜

우리의 평화 정원에 만들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평화의 기둥이었습니다. 우리는 네 가족에게 그들이 선택한 말로 평화의 기둥을 디자인해보기를 요청했습니다. 한 가족은

¹ 개본타, 베버리 로버츠.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pp. 132–134). Presbyterian Publishing Corporation. Kindle Edition

"하나님은 당신이 꿈꾸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멕시코의 한 가족은 유명한 멕시코 정치가인 베니토 후아레스가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을 선택했습니다. "El respeto al derecho ajeno es la paz"(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평화이다). 예술적인 성향이 강한 가족은 불안, 두려움, 갈등 및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아우르며 우리에게 말을 거는 평화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안내와 도전이 되는 상징과 단어를 그렸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 나는 에드나의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게으름에 빠지지 마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배우세요. 예를 들어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시간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정의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사랑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에게 가능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가 많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꿔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을 해본 뒤, 평화에 대한 자신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설사 그것이 삶의 방식,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야 함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마음과 가슴을 열고 유연하게 변화할 준비를 하세요.

참여하세요: 평화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갈등이 없는 상태"라는 과장되고 혼란스러운 평화에 머물지 마세요. 바울은 확실히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교류하면서, 그는 항상 화해와 평화의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다른 정의에 귀기울이세요.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물러설 시간이 없습니다. 중단하지 마세요! 참여하세요.

돌보세요: 돌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그리고 또 돌봄. 무관심, 게으름, 험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 곳이 없습니다.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고, 당신처럼 말하지 않고, 당신처럼 옷을 입지 않고, 당신처럼 살지 않고, 당신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존중하는 것은 서로를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연약하나 가치있고, 완벽하지 않으나 악마 취급이 아닌

인간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인격체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나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치유하세요: 코비드 -19 이 유행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신체적인 치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얻는 것 또한 치유입니다. 전쟁은 파괴적입니다. 억압은 삶을 파괴할 정도로 인간의 영혼을 상처 입힙니다. 평화는 치유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른 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른 이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치유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으로 치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평화가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평화를 신뢰하세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은 진정으로 가능하며 이 세상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세요. 암울해 보여도 빛과 희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바울이 축복으로 주었던 하나님 평화의 선물이 우리의 축복이기도 하다는 확신과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지식으로 사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모든 이를 위한 행복과 풍요인 평화가 당신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오늘과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 *마리사 꺄번 배일 목사,
비치몬트 장로교회, 루이빌, 켄터키*